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과 경제적 부담

김지경*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과 월평균 가계의 지출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가구의 평균 시설이용률은 60.9%이고,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수가 두 명, 가구의 총 가구원이 네 명, 가구 내 취업자수가 두 명, 그리고 2세대가족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이 비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에 비해 1.4배가량 높고, 근로소득수준이 낮은 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으로 인해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21만7천원이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비용의 수준도 높아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월평균 13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월평균 5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34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대비 가계의 보육비 지출비용의 비율은 평균 12.3%이고, 분석가구의 38.4%가 가구소득의 5~10%미만 수준을 자녀의 시설이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소득대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5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67.6%가 가구총소득의 5%미만을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가구총소득의 20%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36.2%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계의 시설이용비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가계지출에 대하여 전체분석가구의 61.5%가 부담된다고 하였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3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월평균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조금부담' 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매우 부담' 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들어가는 말

산업사회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

시장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jkkim@kli.re.kr)

라서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력 저활용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 논의의 초점은 자녀양육 부담의 완화로 모아졌다.

그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가족 문화 및 자녀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은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정책을 추진시켜왔다. 그 결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육시설수의 빠른 증가이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인 1992년과 2003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03년 12월 현재 24,142개소(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www.educare.or.kr>)로 5.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부족한 자녀양육 서비스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적증가만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보육시설 확충의 결과가 가계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자녀출산과 양육시기인 30-34세에 낮아지며, 육아부담이 여성 취업의 가장 주된 장애요인(통계청, 2002)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서문희, 2002)는 보육시설 수요자의 의견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가계의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국공립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이 중심이 된 보육시장의 성장과 확대는 보육시장구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2003년 12월

현재 전체 24,124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은 각각 1,329개소(5.5%)와 236개소(1.0%)에 불과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3,644개소(56.5%)와 8,933개소(3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보육시설 중 법인시설(1,632개소:6.7%)의 비율을 국·공립시설과 함께 공공보육시설로 묶어 구분하더라도 공공보육시설과 민간시설비율의 불균형(12.2%:87.8%)은 심각한 수준이다(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URL: <http://www.educare.or.kr>). 이처럼 민간개인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정부가 보육시설확충 사업을 전개하면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용자사업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변용찬, 2002).

정부는 교육 및 보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공공보육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료 등의 형태로 교육 및 보육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보육시설은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지역에 우선 설립되어야 하고 2세 미만의 영아나 장애아의 전담보육, 시간제보육이나 야간연장, 24시간반, 휴일반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민간보육시설관련자들로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니, 상류층 2.0%, 중산층 44.3%, 중하류층 32.4%, 저소득층 21.3%(임유경, 2002)로 과반수에 가까운 아동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국·공립시설의 최소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받아야 할 가계가 적지 않은 보육비를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

우 적기 때문에 주거지와 근접한 민간보육시설을 우선 선택하여 이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시설을 통한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지원대상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향후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아동에게 직접 지원 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개 되고 있다.

비단 저소득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용료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민간보육시설의 수가 보육시장에 절대적으로 많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적게는 1-2 가지, 많게는 7가지 이상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특별프로그램(영어, 미술, 체육 등)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 2003;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1)을 고려하면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실제 가계의 지출비용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수준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가 보육비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만 가장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가 보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계가 지출해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적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지출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부담의 정도도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교육 및 보육시설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학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교육 및 보육의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하기 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동보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상당 비율이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 학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시설의 이용정

도를 파악한다면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보육현황을 파악하거나 현실적인 보육수요를 예측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와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층의 아동들도 안전한 보호와 적절한 교육의 내용이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장치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보육’을 논의 하는데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 및 보육기관이용률을 살펴보고, 자녀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으로 인하여 가계가 월평균 지출하는 지출비용과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자녀수, 소득수준, 소득대비 지출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가계의 보육비 지출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자녀 보육비 지원수준과 관련된 현 정책을 보완하거나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대상

본 분석의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5차년도(2002년)자료이다. KLIPS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에 재수생 이하 자녀의 유무를 묻고,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모든 개별자녀 마다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되는 사교육 및 보육시설은 ①학원, ②개인 및 그룹과외, ③학습지, ④방과 후 교내보충,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일반유치원, ⑫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표1>에 제시한 KLIPS 5차년도(2002년)에 조사된 4,298가구 중 초등학교3학년(만9세)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가

〈표 1〉 분석대상가구

(단위: 가구,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전 체		4,298	100.0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유무	자녀 없음	3,127	72.7
	자녀 있음	1,171	27.3

〈표 2〉 가구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가구, %)

특 성	범 주	사 례 수(비율)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¹⁾
초등3이하 자녀수 ²⁾	1명	661(56.5)	56.3
	2명	471(40.2)	67.4
	3명	39(3.3)	60.7
가구원수	3명 이하	295(25.2)	39.3
	4명	568(48.5)	72.6
	5명	184(15.7)	61.9
	6명 이상	124(10.6)	56.9
가구 내 취업자수	1명	66(5.6)	35.6
	2명	926(79.1)	62.6
	3명	179(15.3)	61.1
세대구성	2세대	1,021(87.2)	61.2
	3세대 이상	150(12.8)	59.0
월평균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117(10.0)	47.6
	100-200만원 미만	413(35.3)	55.6
	200-300만원 미만	336(28.7)	62.5
	300-500만원 미만	215(18.3)	70.5
	500만원 이상	90(7.7)	73.1
거주지역	서울	221(18.9)	68.6
	경기	259(22.1)	60.5
	광역시	358(30.6)	59.9
	도 지역	333(28.4)	57.1
전 체		1,171(100.0)	60.9

1) 이용률: 자녀수대비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자수비율(이하 표 동일)

2) 초등학교 3학년(만9세)이하 자녀수(이하 표 동일)

구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과외와 학습지, 그리고 방과 후 교내보충을 제외한 ①학원, ⑤방과 후 교실,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정규유치원, ⑫기타의 이용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각 자녀들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금액의 총 합을 '가계의 지출비용'으로 산출하였고, 지출비용에 대한 가계의 부담정도는 '전혀 부담되지 않음(1)'에서 '매우 부담됨(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결과

1)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본 분석에서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의 총 수(B) 대비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수(A)의 비율(A/B)을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로 정의한 후 가구당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자녀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시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가구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그리고 자녀의 특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는 개별 자녀단위에서 분석될 수 있는 자녀의 특성을 제외하고 가구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표2>와 <표3>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2>에 정리되어 있는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에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률이 67.4%로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경우 4명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가 72.6%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가구 내 취업자 수로 구분하면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의 이용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으나, 취업자 수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도

61.1%로 높아 취업자 수가 두 명인 가구와 세 명인 가구의 이용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한 명인 가구의 이용률은 35.6%로 취업자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에 비해 매우 낮다.

가구의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가계의 근로소득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월평균 가구총소득에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월평균 가구총소득에 따른 이용률은 어떠한가? 5가지 범주로 소득수준을 나누어 이용률을 제시한 가구소득수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갖는 가구의 이용률은 47.6%인데 반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가구의 이용률은 73.1%로 그 차이가 25.5%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이용률이 68.6%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57.1%로 가장 낮으며, 서울과 서울 이외지역의 차이는 상당하나, 광역시를 비롯한 서울 이외 지역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의 증가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였다는 것과, 저소득계층을 우선 보육해야 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가족 내에 조모 등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나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통계청, 2002; 서문희, 2001). 이에 본 분석은 가구의 세대구성에 따라 이용률을 비교해 보았는데,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59.0%)보다 2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이용률(61.2%)이 2.2%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 내에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을 경우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아 질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이 자녀보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보육의

〈표 3〉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가구, %)

특 성	범 주	사례수(비율)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
연 령	만30세 미만	267(23.4)	33.2
	만30세~39세	763(66.8)	70.6
	만40세 이상	113(9.8)	61.9
교육수준	고졸 미만	93(8.1)	58.6
	고졸	676(59.1)	65.0
	전문대졸	165(14.4)	53.7
	대졸 이상	209(18.4)	54.7
취업상태	취업	449(39.2)	73.2
	미취업	694(60.8)	53.0
취업모 월평균 근로소득 ¹⁾	100만원 미만	177(39.4)	75.0
	100-200만원 미만	222(49.4)	72.4
	200만원 이상	50(11.2)	71.0
전 체		1,143(100.0)2)	61.0

1) 취업상태에 있는 449명의 월평균 근로소득.

2)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28가구 제외.

방법이 아니라 가족 내에 자녀보육을 맡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없을 경우 가계가 차선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구의 특성만큼이나 어머니의 특성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3>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이용률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조사가구에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는 28가구가 제외되어 1,143가구가 분석되었다.

먼저 세 범주로 구분된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가구의 이용률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61.9%, 20대 33.2%로 나타났다. 20대의 젊은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초혼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

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녀들이 매우 어린 영아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상태에 있을지라도 시설보육에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고졸학력인 가구의 이용률이 65.0%로 가장 높으며, 전반적으로 고졸이하의 경우가 전문대졸이상의 경우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고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력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시설보육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선행연구들(서문희, 2001; 나정·장영숙·문무경, 2000; 서문희·임상현·임유경, 2000)에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 주요한

〈표 4〉 자녀수별 가구의 지출비용 분포

(단위: 가구, %, 만원)

월평균 지출 비용	전 체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가구
10만원 미만	116(14.6)	76(20.4)	34(8.7)	6(18.2)
10~20만원 미만	328(41.2)	193(51.9)	127(32.4)	8(28.2)
20~30만원 미만	175(21.9)	64(17.2)	100(25.5)	11(33.3)
30만원 이상	178(22.3)	39(10.5)	131(33.4)	8(24.2)
계	797(100.0)1)	372(100.0)	392(100.0)	33(100.0)
평균지출금액	21.7	16.6	26.3	24.9

1) 초등학교3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 중 교육 및 보육시설 자녀가 있는 가구만 분석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표3>과 같이 본 분석에서도 취업한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이용률(73.2%)이 어머니가 미취업상태인 가구의 이용률(53.0%)에 비해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취업한 어머니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취업한 어머니(449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세 범주로 나누어 이용률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이용률 75.0%,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이용률 72.4%, 200만원이상인 가구의 이용률 71.0%로 어머니의 근로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수준이 높은 취업모의 경우 시설보육보다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녀의 시설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1,171가구 중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797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의 정도를 자녀수와 소득수준별, 그리고 소득수준대비 지출금액의 비율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표4>는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하여 가구가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수준을 가구 내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수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그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797가구의 월평균 지출금액은 21만7천원인데, 두 자녀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이 26만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 지출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자녀 가구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9%가 10~20만원미만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고, 두 자녀 가구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인 33.4%가 30만원이상을 지출하며, 세 자녀 가구의 경우는 33.3%가 20~30만원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자녀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을 고려해 볼 때, 이용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표5>는 가구총소득대비 시설보육비 지출비율의 분포이다. 전체 분석가구의 가구총소득대비 자녀의 시설이용에 따른 가계의 지출비용의 비율은 평균 12.3%이고, 분석가구의 38.4%가 5~10%미만 수준을 자녀의 시설이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구분된 가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 자녀가구는 5~10%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표 5〉 가구총소득 대비 시설보육비 지출비율 분포

(단위 : 가구, %)

지출비율	전 체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가구
5% 미만	197(24.7)	122(32.8)	65(16.6)	10(30.3)
5~10% 미만	306(38.4)	165(44.3)	134(34.2)	7(21.2)
10~15% 미만	158(19.8)	59(15.9)	91(23.2)	8(24.2)
15~20% 미만	65(8.2)	11(3.0)	49(12.5)	5(15.2)
20% 이상	71(8.9)	15(4.0)	53(13.5)	3(9.1)
계	797(100.0)	372(100.0)	392(100.0)	33(100.0)
평균지출비율(%)	12.3	11.8	13.0	11.3

〈표 6〉 가구의 총소득수준별 지출 비용

(단위 : 가구, %, 만원)

월평균 가구 총소득	사례수(비율)	월평균 지출 비용
100만원 미만	58(7.3)	13.2
100~200만원 미만	262(32.9)	17.2
200~300만원 미만	241(30.2)	21.9
300~500만원 미만	165(20.7)	26.1
500만원 이상	71(8.9)	34.5
전 체	797(100.0)	21.7

5%미만을 지출하는 비율도 32.8%로 높아 77.1%정도가 10% 미만수준에서 자녀의 시설이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자녀가구 또한 한 자녀가구와 같이 가구총소득 대비 5~10%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34.3%로 가장 높기는 하나, 10%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이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 자녀나 세 자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총소득의 많은 비중을 자녀의 시설이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6>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수준별 교육 및 보육시설 지출비용의 분포와 각 소득수준에서의 평균

지출비용을 제시하였다.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은 5범위로 구분하였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지출비용의 수준도 높아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월평균 13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 500만원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갖는 가구는 34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자녀의 보육에 많은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육시장이 서울지역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확충되어 있다는 것과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부담을 지불해야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 및 보육시설에

〈표 7〉 가구 총소득수준별 소득대비 지출비용의 비율 분포

(단위 : 가구, %)

지출비용 월평균가구소득	전 체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 이상
100만원 미만	58(100)	9(15.5)	11(19.0)	14(24.1)	3(5.2)	21(36.2)
100~200만원 미만	262(100)	38(14.5)	84(32.1)	73(27.9)	31(11.8)	36(13.7)
200~300만원 미만	241(100)	49(20.3)	114(47.3)	43(17.8)	23(9.5)	12(5.1)
300~500만원 미만	165(100)	53(32.1)	77(46.7)	26(15.8)	8(4.8)	1(0.6)
500만원 이상	71(100)	48(67.6)	20(28.2)	2(2.8)	-	1(1.4)
계	797(100.0)	197(24.7)	306(38.4)	158(19.8)	65(8.2)	71(8.9)

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어린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에서부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의 수 등을 통제 한 후 가구의 소득수준별 지출비용의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현황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7〉은 월평균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가구총소득대비 지출비용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797가구의 38.4%가 가구소득의 5~10%미만, 24.7%가 5%미만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월평균 500만원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67.6%가 가구총소득의 5%미만을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 가구총소득의 20%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36.2%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계의 시설이용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 보육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추가적으로 가계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본 분석에서 최저소득층으로 분류한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포함되어 있는 58가구 모두가 전액

보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들 자녀가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계가 실제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이 당연히 발생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저소득가구의 상당비율이 소득의 20%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3) 가계의 경제적 부담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지출금액의 수준별,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5점 척도로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정도를 분석하였다. 〈표8〉은 소득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에 대한 분포이다.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61.5%가 자녀의 보육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월평균 3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월평균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조금부담’ 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매우 부담’ 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소득수준별 지출비용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가구, %)

부담정도 월평균가구소득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100만원 미만	58(100)	-	3(5.2)	14(24.1)	19(32.8)	22(37.9)
100~200만원 미만	262(100)	-	10(3.8)	57(21.8)	140(53.4)	55(21.0)
200~300만원 미만	241(100)	4(1.7)	8(3.3)	88(36.5)	99(41.1)	42(17.4)
300~500만원 미만	165(100)	2(1.2)	10(6.1)	65(39.4)	55(33.3)	33(20.0)
500만원 이상	71(100)	1(1.4)	3(4.2)	41(57.8)	14(19.7)	12(16.9)
계	797(100.0)	7(0.9)	34(4.3)	265(33.3)	327(41.0)	164(20.5)

〈표 9〉 지출금액 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가구, %)

부담정도 월평균지출금액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10만원 미만	116(100.0)	2(1.7)	13(11.2)	47(40.5)	40(34.5)	14(12.1)
10~20만원 미만	328(100.0)	1(0.3)	10(3.1)	116(35.3)	142(43.3)	59(18.0)
20~30만원 미만	175(100.0)	2(1.1)	4(2.3)	54(30.9)	73(41.7)	42(24.0)
30만원 이상	178(100.0)	2(1.1)	7(3.9)	48(27.0)	72(40.5)	49(27.5)
계	797(100.0)	7(0.9)	34(4.3)	265(33.2)	327(41.0)	164(20.6)

<표9>는 지출금액 수준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 지출금액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는 부담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12.9%의 적지 않은 비율의 가구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0만원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금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대비 지출비율별로 가계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표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총소득의 5%와 10%를 기준으로 부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대비 지출비율이 5%미만인 가구의 경우 자녀의 시설이용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한 부담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가장 높고, 5~10%미만에서는 '조금부담' → '보통' → '매우부담'의 순이다. 그러나 소득대비 1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들의 경우는 '조금부담' → '매우부담' → '보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대비 2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는 81.7%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39.4%가 매우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어머니가 미취업한 가구의 경우가 부담된다고 응답

〈표 10〉 소득대비 지출비율별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부담정도 소득대비지출비율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 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5%미만	197(100.0)	3(1.5)	19(9.6)	98(49.8)	52(26.4)	25(12.7)
5%~10% 미만	306(100.0)	3(1.0)	9(3.0)	113(36.9)	132(43.1)	49(16.0)
10%~15% 미만	158(100.0)	1(0.6)	6(3.8)	32(20.3)	75(47.5)	44(27.8)
15%~20% 미만	65(100.0)	-	-	9(13.9)	38(58.4)	18(27.7)
20% 이상	71(100.0)	-	-	13(18.3)	30(42.3)	28(39.4)
계	797(100.0)	7(0.9)	34(4.3)	265(33.2)	327(41.0)	163(20.6)

〈표 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교육 및 보육비용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가구, %)

부담정도 모(母)취업여부	전 체	전혀 부담안됨	부담 안됨	보 통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취업	347(100.0)	4(1.2)	14(4.0)	120(34.6)	133(38.3)	76(21.9)
미취업	450(100.0)	3(0.7)	20(4.4)	145(32.2)	194(43.1)	88(19.6)
계	797(100.0)	7(0.9)	34(4.3)	265(33.2)	327(41.0)	164(20.6)

한 비율이 62.7%로 취업한 가구(60.2%)의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예측했던 바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취업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로서 교육 및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녀보육비로 많은 금액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취업모들의 경우는 시설의 이용보다는 친인척이나 타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취업모에 비해 부담된다는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응답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요약 및 시사점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률

이 가구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자녀의 시설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지출비용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년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분석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3학년이하의 자녀수가 두 명, 가구의 총 가구원이 네 명, 가구 내 취업자수가 두 명, 그리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보다는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자녀가 있는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근로소득수준에 따른 이용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이 비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에 비해 1.4배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로소득수준이 낮은 취업모 가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취업모 가계의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월평균 가계의 지출비용의 수준이 21만7천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61.5%의 가구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분석결과를 고려 해 보면 보육시설의 이용이 가계의 자녀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36.2%가 가구총소득의 20% 이상을 자녀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는 정부의 관련정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따라서 현행 정부의 지원과정과 절차의 수행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없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비와 실제 가계가 자녀의 시설 이용으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보육비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수준과 가계가 실제 지출하는 보육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가계에 지원할 보육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정부의 육아지원계획안에는 0-4세 육아비용의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보다 가계부담이 평균 50% 정도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여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비용은 전액,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는 60%까지, 평균 소득가구의 자녀는 30%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본 분석을 통해 부각된 저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자녀보육비 지출비용의 부담은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집단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품질 · 균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욕구에 비해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은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자녀보육의 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만5세아의 무상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올 해 1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비롯한 취약집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면서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가계가 체감하는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수준은 정부가 최소한으로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기초적인 지원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타 가구의 실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시설로서의 유지와 함께 자녀가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계가 감당해야 하는 실제적인 비용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고민은 지원대상에 있어 선별적인 접근이 아닌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적인 접근을 전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질적인 문제와 보육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고소득 · 전문직 취업여성들도 공공성이 보장된 보육시설을 통해서 자녀보육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